

아이에스이커머스 관계사 'W컨셉 차이나', 약 146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 ▶ 中 썬마그룹&아이에스이커머스 유상증자 참여
- ▶ IT기술 개발 및 PB상품 개발에 자금 활용 예정
- ▶ 엣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확장 및 컴퍼니 빌더로서의 역량 강화 자신

<2018-07-31> 전자상거래 기반 생활문화 브랜드 리딩 기업 아이에스이커머스(069920, 대표 김응상)의 핵심 관계사 'W컨셉 차이나'가 약 146억 원(9,000만 위안)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국 대표 의류기업 썬마그룹과 아이에스이커머스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투자금액은 각각 117억 원, 29억 원 규모다. 현재 'W컨셉 차이나'는 썬마그룹이 지분 80.1%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으며, 아이에스이커머스(19.9%)도 주요주주로 있다. 증자 후 지분율에 변동은 없다.

이번 증자로 확보된 자금은 글로벌 상품 소싱 및 판매 강화를 위한 IT기술 개발 및 수익성 높은 자체브랜드(PB) 상품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아이에스이커머스와 썬마그룹이 합작투자해 출범한 'W컨셉 차이나'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국내 브랜드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티몰(tmall) 비롯해, 징둥(JD.com), 세쿠(Secoo)등 대형 플랫폼에 순차적으로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증자는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관계사들이 'W컨셉 차이나'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것은 물론, 상호 신의를 증명하는 의미 있는 증자로 풀이가 가능하다.

아이에스이커머스 관계사는 "일시적 정체기에 빠졌던 중국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W컨셉 차이나'의 성장세도 강화되고 있다"며 "한층 강화된 온라인 플랫폼 엣지(EDGE)를 활용해 향후 'W컨셉 차이나'의 브랜드 파워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통해 아이에스이커머스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강화가 전망된다"고 전했다.

현재 아이에스이커머스는 온라인 플랫폼 엣지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생활문화 브랜드 컴퍼니 빌더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 자료문의 : 아이에스이커머스 최영일 이사 (070-8709-5585)

IR큐더스 이진영 책임 (02-6011-2000(#138))